



[앵커]

한국 현대 작가 중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설치작가 양혜규 씨의 개인전이 열리는데요. 신새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

[기자]

확 트인 공간에 인조짚을 엮어 만든 커다란 구조물이 눈에 들어옵니다. 안과 밖을 나누는 동시에 벽처럼 명확한 경계는 없는 '블라인드' 작품도 펼쳐집니다. 소규모 회고전인 동시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양혜규의 개인전이 마련됐습니다.

<양혜규 / 작가> "어느 정도 호기심을 충족할 만큼 이전 작품을 소개하고 그런 풍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생명력, 그 왕성함까지...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"

2009 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를 맡고 해외 우수 미술관에서 개인전도 열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익숙치 않은 이름입니다. 하지만 양혜규 작가는 지난해 미술전문 분석지가 선정한 세계 300 대 작가에 고 백남준 선생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.

해외에서는 주목받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낯설었던 그의 예술세계를 접해보고 향후 세계 무대에서 펼쳐질 그의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연합뉴스 TV 신새롬입니다.

연합뉴스 TV 제보:02-398-4409, yjebo@yna.co.kr

---

URL: <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422&aid=0000102800>